

밤 야 지하철법회



◇ 지하철 불축연등달기 준비에 바쁜 법우회원과 부인들.

"365일 무사고 서원합니다"

"1천만 서울 시민의 발인 지하철의 안전운행을 날마다 서원합니다."

서울시 지하철공사 직원들의 신형모임인 지하철법우회(회장 신철호·57)의 가장 큰 서원은 지하철의 365일 무사고 운행이다. 3백여명의 회원들은 항상 개방되어 있는 세계 유일의 지하철당에 수시로 들러 안전운행과 개인적인 성취를 발원한다.

요즘에는 5월1일부터 15일까지 65개 지하철역사(驛舍)에 달 불축연등 만들기엔 눈코 뜰새 없이 바쁘다. 회원들이 일근 3조 2교대, 4조 3교대 등 힘든 근무조건이라 부인들이 10여명씩 교대로 나와 연등을 만들고 있는 점이 이색적이다. 이처럼 각종 행사나 법회에 가족들이 항상 함께 참여하는 것이 다른 직장법회와 다른 독특한 점.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108배 정진법회에는 회원들보다 부인들이 오히려 더 많이 참석한다. 또한 매월 둘째주 화요일 오후 7시, 넷째주 토요일 오전 11시 정기법회에는 부부와 아이들도 함께 하는 가족법회가 된다. 법회가 끝나면 다과회를 연 가운데 유정림 사무국장이 회원들의 동정과 인사이동, 경조사 등을 알려 회노애락을 함께 한다. 법우회가 창립된 것은 90년대 중반. 91년 5월 구룡사에서 창립 법회(초대회장 심길섭·당시 지도법사 성초스님)를 갖고 사당역 지하3층에 조그만 법당을 마련하기까지는 봉은사 등 주위 각 사찰

을 전전하면서 법회를 봉행했다. 지난 92년 10월에는 불자인 김진호사장의 도움으로 지금의 종합운동장역사에 30여평 가량의 법당을 새로 마련, 아마타부 처님과 후불행화를 모셔 번듯한 도량을 갖추고 본격적인 신생활 등을 펼치고 있다. 매년 부처님 오신날에 실시하는 지하철 연등달기 행사와 봄·가을 성지순례로 신심을 다지고, 분기별로 왕십리 영아원과 상계동 노인회로 보살행을 펼치는 등 꾸준한 활동으로 직장 법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 지도법사인 화안스님(봉은사 총무국장)은 "몸에서 시민의 발이 되어 법우회원들은 개인적인 정진과 함께 이웃의 행복을 기원하는 지장코살 같다"고 추켜세운다.

김재경 기자

현직검사가 부처님 말씀 강의

대구지검 김성렬검사 '능엄경' 매주 열강

동화사포교인 관오사 부설 불교사회교육원(원장 지도)에서는 3일부터 매주 한차례씩 3개월간 현직검사에 의한 능엄경 강의가 시작됐다. 강사는 대구지검 형사2부에 재직중인 김성렬검사(39). 김검사는 "(반야경)이 다 소 추상적인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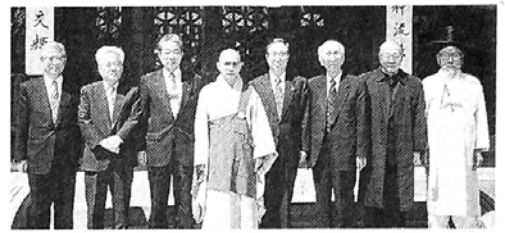


한때 입산 운허스님 문하 법조인 특유의 통찰력 발휘

은 우주와 중생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진언을 열었다. 이번 강의는 현직검사의 경진강의라는 점과 강의교재가 승가에서도 어렵게 여겨지는 《능엄경》이라는 점에서 적지않은 반향을 일으켰다. 고교졸업후 봉선사로 입산한 김검사는 운허스님 문하에서 약 3년동안 《능

엄경》과 《반야경》 등 소의 경전을 두루 섭렵했다. 당시에 받은 법명은 의능(義能). 이후 속가로 돌아온 김씨는 단국대 법학과에 입학하여 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능엄경) 자체가 나에게 하나의 큰 화두"라는 김씨 는 《능엄경》은 망상을 제거하고 진언으로 인도하는 길잡이"라고 강조한다. 공부에서 얻은 기쁨을 혼자서만 누리기가 아까워 강의를 수락하게 됐다 김검사는 법조인 특유의 예리한 통찰력에 바탕을 둔 강의를 펼치고 있다.

대구=이윤호 기자



종교계지도자 과소비추방 다짐

종교지도자들은 9일 서울필동 한국교회에서 송태호 문체부장관 초청으로 오찬을 갖고 사치풍조 추방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왼쪽부터 조정은 원불교교정위원장, 최근덕 성균관장, 김재중 천도교교정, 원주 총무원장, 송태호 문체부장관, 유호준 한국교회신교단체협의회장, 김옥근 천주교서울대교구총대리주교, 한양원 민족종교협의회장.



녹원스님 고회기념 논총 봉정법회

영허(曠虛) 녹원스님(직지사회주·동국학원 이사장)의 고회 기념 논총봉정 및 축법법회가 10일 직지사 민덕전에서 봉행됐다. 강행위원장인 송석구 동대총장은 인사말에서 한국불교의 최요를 분명하게 제시한 스님의 업적을 치하했다. 이날 법회에는 관음스님을 비롯, 설정(중앙총회 의장) 태음(불교TV 이사장) 녹원스님문도회, 서문각박사, 이이근 경북지사, 황명수 전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6백여명이 참석 축하했다.



육군 불무리부대 호국항공사 기공식

육군 불무리부대 신교대 법당으로 사용될 호국항공사(주지문무원법사) 기공식이 8일 불무리부대 헬기 강하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불무리 부대장, 석정포교위원장 석장, 송암사 주지 선명스님, 군불사 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6천여만원이 투입되어 오는 6월10일 완공될 호국항공사는 건평 60평 규모의 조립식 건물로 조성된다.



청교련 탐골공원 봄맞이 대청소

(사)대한불교청교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는 5일 탐골공원에서 봄맞이 대청소 활동을 벌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1백50여명의 서울시내 중고등학생들이 참여 탐골공원의 독립선언문 비문, 순병희선생 동상, 한용운시비, 3·1절 독립운동기념부조관 등을 청소했다. 또 청소년들은 원각사10층석탑 주변을 청소하며 성보보존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동국대 물자절약운동 솔선

물아껴쓰기등 8대강령 선포

동국대학교(총장 송석구)가 7일 오후 본관 불상 앞에서 교수·교직원·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아껴쓰기 운동' 선포식을 갖고 물자절약운동을 외치고 나섰다. "국가현실은 지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제 회복의 불씨를 대학의 광장에서 점화합시다." 김익기 동국대 교수회장의 '국가경제 비상'의 불을 지피자'는 선언문 낭독에 이어 '물을 아껴 씹시다' 등 8개항의 행동강령이 제창되고, 행동강령 스티커가 도서관 출입구에 붙여졌다. 송석장 등 교수 및 교직원, 학생들은 선포식이 끝난 직후 여학생회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알뜰장터'를 둘러보는 자리에서 현우들을 기증했다(사진). 동국대는 여유공간이 확보된대로 알뜰장



터에 물물교환 정보게시판을 마련, 학생들의 절약정신을 고취해 나가기로 했다. 동국대는 이밖에도 화장실 수압밸브 조절 등을 통해 물사용량을 15% 줄이기로 하는 한편 차량 10부제를 실시하는 등 대대적인 물자절약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우)

우리 모임에선

운불련 정총 및 수련회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회장 박영조)는 23, 24일 수덕사에서 제2차 정기총회 및 수련대회를 갖는다. 전국 14개 지역 2천여명의 회원중 1백여명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첫째 날 총회는 예·결산 등 주요안건의 심의와 사업계획 확정, 유공자 표창 수여 등으로 진행된다. 둘째날 수련대회에서는 새벽예불 및 참선, 간월암 방생법회 등으로 심신을 제화하고 전법자로서의 긍지를 다질 예정이다.

MBC불교연구 수덕사 순례

MBC불교연구회(회장 우희근)는 지난 3월 29, 30일 예산 수덕사에서 제4차 명찰순례 법회를 가졌다. 회원 30여명이 동참한 이번 법회는 주지법장스님의 법문, 참선, 산행 등으로 진행됐다.

청교련 진주지부 체육대회

(사)대한불교청교소년교화연합회 진주지부(지부장 김기원)는 20일 오전 9시 진주 봉래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진주지역 불자청소년 체육대회 및 어울마당을 개최한다. 신입생 환영회를 겸한 이날 행사에서는 진주지역 3백여 불교학생회 회원들이 배구 피구 릴레이 2인3각 등의 운동경기와 어울마당을 통해 단합을 도모한다. 또 모범청소년시상식도 갖는다.

해남지역 불자 등산대회

전남 해남지역 불자가족은 10일 두륜산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등산대회를 가졌다. 대운사 신도회(회장 김재현)소속 회원 등 해남지역 불자 2천여명은 산내 암자인 북암까지 자연보호운동을 펼친후 법회를 열고 청정국토의 완성을 다짐했다.



꽃모종 심는 고사리손

조계사(주지 현근) 마당에 어린이불자들의 고사리 손으로 일군 '롬비니동산'이 조성됐다. 조계사어린이회(지도간사 박성희) 회원 80여명은 6일 봄비가 촉촉히 내리는 가운데 조계사 대웅전과 덕양전, 조계종 교육원 마당에 해바라기 채송화 봉숭아 모종을 심어 화단을 꾸몄다.

공 동 결 의 문

조계종개혁불사의 도도한 흐름이 시작되기도 어언 3년을 경과하고 있습니다.

3년전 오늘, 조계종 전종도와 사부대중은 바른 법과 바른 교단과 바른 실천을 위해이곳에 모였습니다. 다음해인 3·29 구중법회와 4·10 승려대회의 험난한 여정에서도 종단의 민주적 운영과 불교의 자주성을 만천하에 천명하는 두가지 원칙만은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다.

돌이켜보면 당시 우리가 '개혁'을 부르짖은 것은 단순히 교단만을 정화하려는 것이 아니었으며, 종단의 외형적인 구조 변화만을 지향하는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뼈를 깎고 피를 토하는 비련의 길로 우리가 외쳤던 '개혁'은 바로 이 세계에 새로운 삶의 가치, 새로운 삶의 질서를 제시하기 위한 몸부림이었으며, 이 사바세계를 청정한 불국토로 만들기 위한 시대선언이요 깨달음이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1994년 '종단개혁불사'는 한 날 고통의 의미로 남아 있는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한국불교의 오늘을 지명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중요한 삶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종단개혁과 한국불교 현대사의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던 4·10승려대회 3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현실은 우리에게 다시금 개혁의 원칙과 지향점을 되새기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종단내외의 상황은 매우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종단내부적으로는 종단개혁의 근본을 뒤흔들 수도 있는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고, 국가적으로는 정경유착의 부패상이 극에 달하고 있으며, 민족적으로는 한반도 이북의 우리 동포들이 식량이 없어 때죽음을 당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난야처럼 얼어있는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1994년 종단개혁을 선언했던 초

발심으로 돌아가 종단개혁의 원칙과 대의와 포부를 새롭게 결의해야 합니다.

먼저 최근 종도들의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선본사 직영사업 해제요구', '종원 개정 특유구성' 등의 주장은 종단개혁의 원칙과 원리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종단개혁의 핵심적인 성과이자 종단의 주요 제도적·물적 기반인 종원과 선본사 등에 대한 논쟁은 개혁에 동참했던 많은 대중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개혁 3주년을 맞이하여 이곳에 다시모인 우리들은 어떠한 연유에서든 개혁불사의 도도한 흐름을 침해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또한 우리는 전 종도들의 전폭적인 동참과 합의에 의해 이룩한 개혁의 성과와 상징들이 위협받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현 총무원에도 적지 않은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 총무원은 1994년 개혁불사에 대한 종도들의 영입을 수렴하면서 탄생하였습니다. 따라서 현 총무원은 개혁의 원칙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태도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불교 방송 사태, 선본사 문제, 종원개정 움직임 등에 대해서는 현 총무원이 개혁의 원칙을 가지고 책임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종단 외부적으로는, 현재 한반도 이북의 우리 동포들의 처해 있는 고통에 대해 우리는 같은 민족으로서, 민족종교의 종교인으로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북한의 동포들이 식량이 없어서 하루하루 사선을 넘나들고 있는 이 때에 우리는 잠시라도 주저해서는 않습니다. 만약 우리의 안전한 판단으로 인하여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덜어주지 못한다면 미지 않은 미래에 우리민족은 자를 수 없는 아픔에 신음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국제사회는 북한의 기아문제를 대처하는데 실패했습

니다. 같은 동포인 남한이 쌀 풍년인데도 북한 동기에 나서지 않는다면 어느나라가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종단 차원에서, 종교계 차원에서, 범국가적 차원에서 북한 동포 동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난 3년동안 전종도들의 영원을 실현하고자 노력했던 모든 분들에게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더불어 개혁 3주년을 맞으면서 3년전 오늘, 구종의 일념으로 개혁의 불씨를 지켰던 우리들은 스스로를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혁불사'의 숭고한 이름 앞에서는 여기있는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있는 누구도 '개혁불사'를 위해 자신의 할 일을 다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다시금 3년전의 우리로 되돌아가는 것을 맹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시간은 지난 3년간의 '개혁불사'에 대한 자신의 태도와 원칙들을 되돌아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껏 보였던 각 단계간의 작은 차이를 다시금 '개혁지속'이라는 큰틀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이 행사가 단순히 3주년을 의례적으로 기념하는 자리로 전락해서는 안될 것이며, '개혁불사'의 숭고한 정신만을 강변하는 자리만 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작금의 엄중한 시기를 함께 인식하는 자리가 되고, 앞으로의 일정을 다시한번 공동으로 모아나갈 수 있는 실천의 장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종도들 앞에 부끄러움 없는 결의와 실천을 기원합니다.

불기 2541(1997)년 4월 10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선우도량, 전국승가대학학인연합, 중앙승가대 학생회, 중앙승가대 동문회, 동국대 석림회, 동국대 석림동문회, 대한불교청년회, 전국 불교운동연합,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